

김은주의 별자리

Astrology 기초반

12. 물고기자리

당신이 물고기자리라면?

01. 나는 언제 행복한가?
02. 가장 최근에 중독된 것은?
03. 주량은 얼마나 되는가?



Pisces

물고기자리

특성

Pisces

물고기자리는 물에 살아야 하는데 땅에 올라와선지 현실 저 너머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현실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졸린 듯 나른한 눈을 한 그들은 예술가 아니면 술 좋아하는 한량이다.

별자리 나이로 80대 노인이라 평소에는 평화로운 바다처럼 조용하고 너그럽지만 느닷없이 태풍처럼 무서운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영향을 준다.

물고기자리는 2월 19일 우수(雨水 : 눈이 녹아서 비가 되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는 절기)에서 3월 21일 춘분(春分 :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봄이 시작되는 절기)에 태어나는데 자연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시기다.

2월 18일 우수~ 3월 20일 춘분

상징 : 한 줄에 걸린 물고기 두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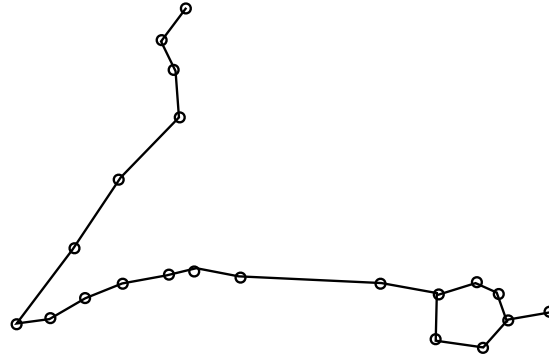
지배행성 : 해왕성(넵툰 Neptun)

구성원소 : 물

상태 : Mutable (변화)

키워드 : 할머니, 꿈

12. 물고기자리



Pisces



Neptun



Pisces

비너스와 에로스

프란츠 플로리스 1세, 16c.

신화

헤시오도스Hesiodos에 따르면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대지Ge와 지옥Tartarus, 그리고 에로스Eros가 있었다고 한다. 제우스 이전에 생긴 최초의 신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아버지는 주신 제우스이거나 전쟁의 신 아레스 혹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라는 설과 함께)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 에로스는 주로 날개 달린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점차 헬레니즘 시기에 이 르러 날개 달린 어린 아이가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대부분 아프로디테와 어린 아이 모습의 에로스가 함께 등장한다.





Pisces

화장하는 비너스

프랑스 화파

신화

나일강에서 펼쳐진 신들의 잔치에 괴물 티폰이 쳐들어와 신들이 놀라 도망쳤다. 이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녀의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와 함께 물고기로 변신해 강으로 뛰어들면서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연결한 모습이 물고기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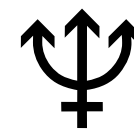


Pis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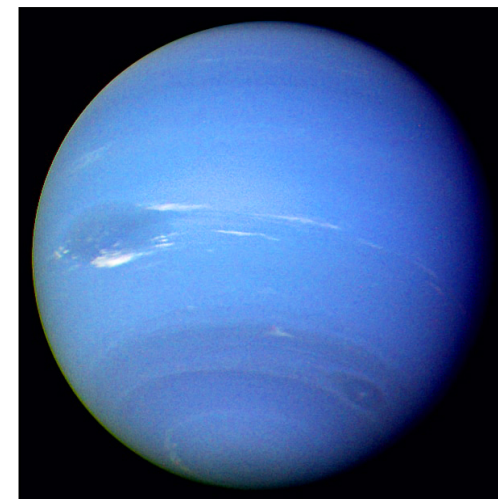
Neptun **해왕성**
지배행성

포세이돈 Poseido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으로, 로마 신화의 넵투누스 Neptunus에 해당한다.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 저승의 신 하데스와는 형제지간이다. 포세이돈은 막내 제우스가 기지를 발휘하여 크로노스가 삼킨 형과 누이들을 구하고 티탄 신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세운 공을 인정받아 바다의 통치권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Poseidon'이라는 이름이 '대지의 남편' 또는 '대지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는 땅과도 매우 관계가 깊은 신이다. 별명이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 포세이돈은 지진과 해일, 화산폭발을 일으키고 하천과 샘을 솟게 하는 신이기도 하다.



해왕성 Neptun



12. 물고기자리

♓

제우스 신 앞에서,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나무를 심고,
포세이돈은 염전 호수를 솟아오르게 한다

Pisces

파올로 파리나티, 16c.

지배행성 신화



12. 물고기자리



Pisces

라오콘

엘 그레코, 17c.

지배행성 신화



♋

Pisces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유명인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음악,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음악이다.

열정 없이는 안되는 작업이다. 누구나 듣기 좋은 음악을 굳이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물고기자리 × ♎ 황소자리

1972년 2월 21일

문화대통령



Bernard Arnault

베르나르 아르노

유명인

Pisces

“사치품은 큰 마진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내 자신이 참을성이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배웠다.”



☉ 물고기자리 * ☽ 염소자리

1949년 3월 5일
LVMH그룹

♋

Hermann Hesse

헤르만 헤세

Pisc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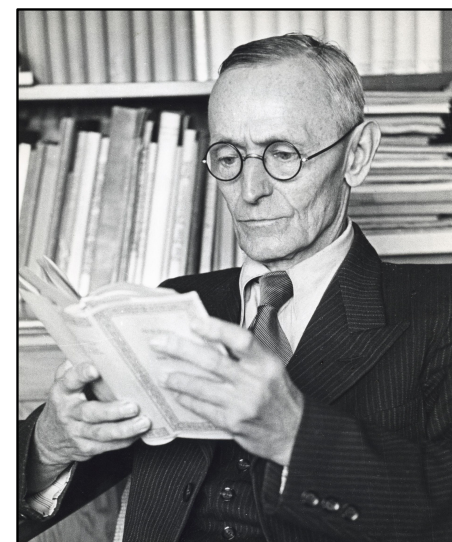
유명인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소설 <데미안>의 첫 구절

“펜과 붓으로 작품을 창조해내는 것은 내게 포도주와도 같아서,
그것에 취한 상태가 삶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따스하
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프란츠 칼 긴츠카이(Franz Karl Ginzkey)에게 보내는 편지(1920) 중



♋ 게자리 × ♋ 물고기자리

1877년 7월 2일



Pisces

I Believe (믿다)

Transcend (초월하다)

화법

관념적으로 민감하게 시적으로 상상으로 채색하여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동정심 때문에 호의적인 태도로 생각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스르거나 요구를 거절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단언보다는 다중적인 의미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말에 유연성이 있고 독특한 색깔의 견해들을 부드럽게 합성한(가시를 뺀)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과 식별력이 꿈을 꾸는 듯한 혼몽함과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는(속는) 애매함에 물들 수 있다.



물고기자리 알아보는 방법

Pisces

화법

잔병치레가 심해요

괴병도 부려요.

길 잃은 동물을 데려와요.

특하면 울어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다른 사람을 따라 해요.

귀가 얇아요.

욕심이 너무 없어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특하면 공상에 빠져요.



Albert Einstein

알버트 아인슈타인

Pis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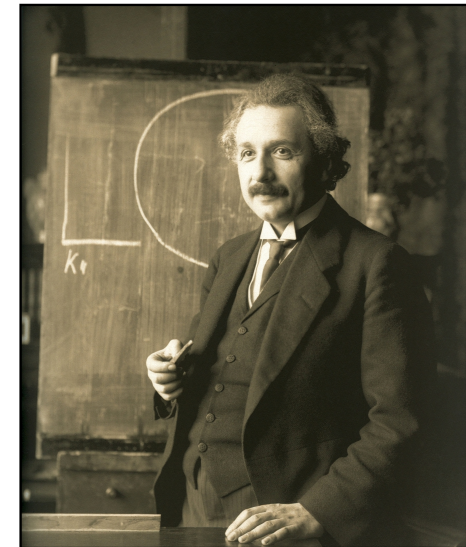
1

유명인

“Great spirits have always encountered violent opposition from mediocre minds.”

훌륭한 사람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 물고기자리 × ☽ 사수자리

1879년 3월 14일

물리학자

특수 상대성 이론



Albert Einstein

알버트 아인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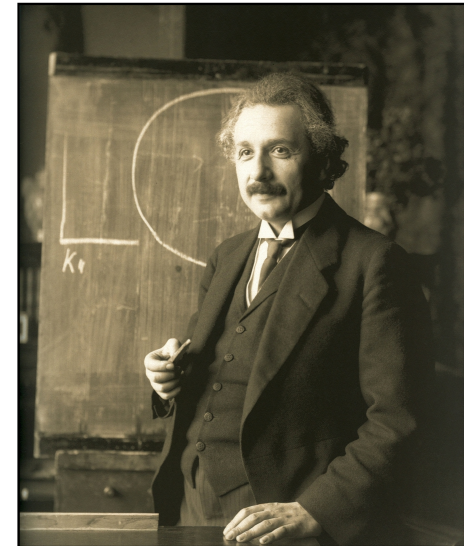
Pisces

2

유명인

“알베르트는 네다섯 살까지 말을 거의 못했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방금 한 말을 작은 목소리로 다시 반복하는 이상한 버릇도 있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놀거나 그저 몽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는 따분한 것을 싫어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요. 특히 수업에 빠지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학교에 다니기 싫어 친구 아버지인 의사선생님에게 가짜 진단서까지 동원한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수업 분위기가 싫대요. 암기만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답니다.”



☉ 물고기자리 × ♃ 사수자리

1879년 3월 14일

물리학자

특수 상대성 이론



Albert Einstein

알버트 아인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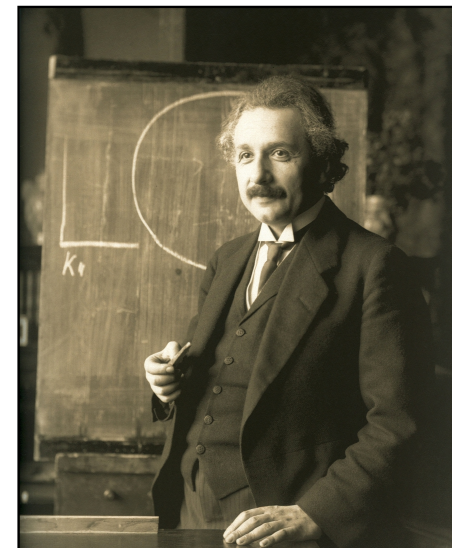
Pisces

3

유명인

“삶을 사는 데는 단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 물고기자리 × ☽ 사수자리

1879년 3월 14일

물리학자

특수 상대성 이론



당신의 아이라면

Pisces

양육

현실 저 너머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현실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즐린 듯 나른한 눈을 한 그들은 예술가 아니면 수시로 현실 도피하는 한량이다.
물고기자리는 무언가에 쉽게 빠져들고 중독되기 쉬운데, 술, 게임, 마약, 도박...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다.

게다가 물고기자리는 귀가 어두워서든, 현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든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꿈과 환상에 빠져 현실 도피하는 버릇을 고쳐주고, 좋은 멘토를 가까이 두게 하라.

특히, 경제 관념을 똑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친구나 불쌍한 이웃을 돕다가 나중에 거지꼴을 못 면한다.



Pisces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사랑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화살 하나로 신들도 꼼짝 못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에로스가 하나로 묶였으니 물고기자리의 연애지능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세상이다.

당신이 물고기자리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잘 안 들려.” 하고 있겠지만) 제발 180도 반대편의 처녀자리에게 현실성을 배워 일도 사랑도 현실에서 하길 바란다. 지금 당신은 물 속이 아닌 물 밖, 지구라는 험난한 세상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야 하니까.

수시로 사랑에 빠지고 수시로 술에 취하며 현실 도피할 생각은 그만 좀 하라.



타이타닉

Pisces

영화

“그쪽이 뛰어내리면 저도 따라서 뛰어내릴 거예요.”

로즈와 잭의 첫 대화

“배가 도착하면 당신과 도망칠래요.”

잭과 섹스한 후 도망치는 로즈의 대사



당신이 지금 물고기자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Pisces

사랑

현실 저 너머를 보는 나른하면서도 치명적인 눈빛, 황홀한 키스, 이 풍진 세상 술이나 한 잔 하자는 감미로운 말들은 누구나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물고기자리에게 한 번 사로잡히면 아무리 고생문이 흰하게 보여도 헤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제발 결혼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처녀자리의 현실주의와 잔소리로 무장하고 확실하게 잡고 살 자신이 있다면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대부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문이 흰한데도 그냥 어찌지 못하고 빠져든다.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며 말려도 들어먹지를 않는다. 그러니 초장부터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신의 사랑이 연민이나 동정심인지 사랑인지, 환상인지 사랑인지.....

뒤늦게 눈물 콧물 바람으로 그 때 왜 말리지 않았느냐 주변사람들을 탓해도 소용없다.



리빙 라스베가스

Pisces

영화

“난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다 해도 내 꼬인 영혼을 당신의 인생에 강요하지는 않아.”

12. 물고기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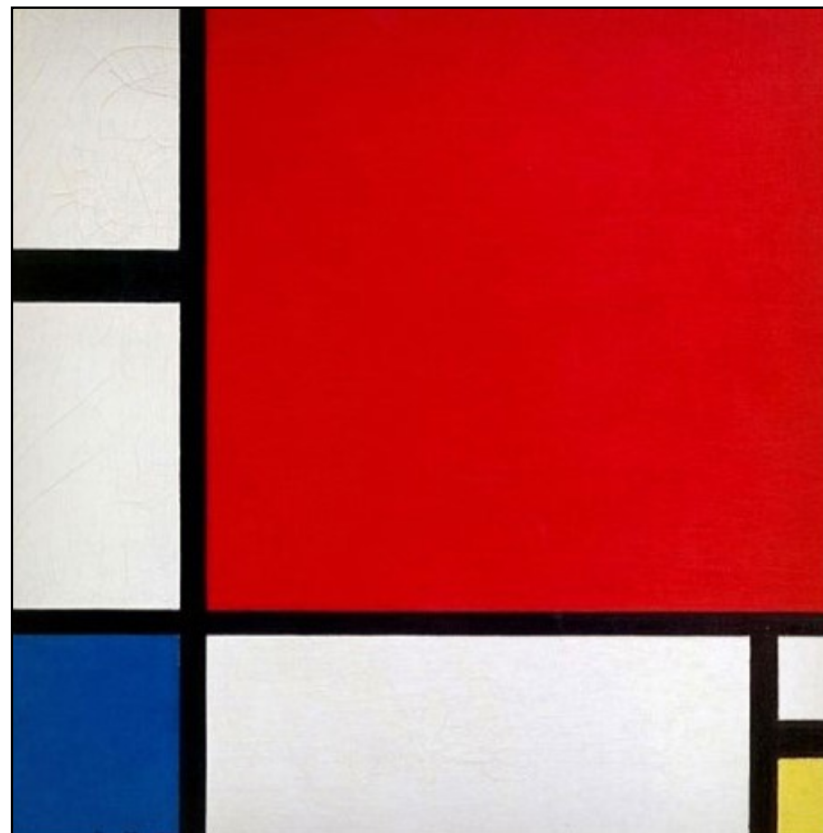


Pisces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1930, 개인 소장, 뉴욕.

그림





Piet Mondrian

피에트 몬드리안

Pisces

1

화가

“나는 평평한 표면에 선과 색의 조합으로 아름다움을 최대한 느끼게 하려고 한다. 자연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데 모든 것의 기초에 도달할 때까지 자연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추상하고 싶다.”



☉ 물고기자리 * ☽ 물병자리

1872년 3월 7일

12. 물고기자리

♋

Pisces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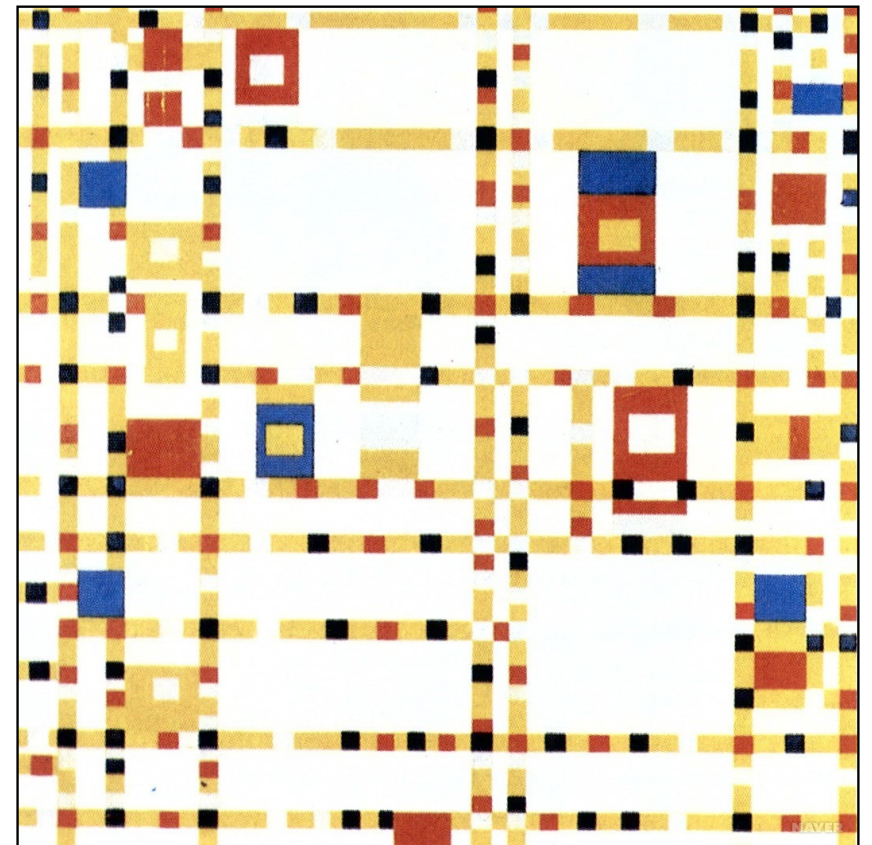
몬드리안, 1943.

2

화가

“세상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색깔이라는 것은 다른 색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차원이라는 것, 위치라는 것도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상사라면

Pisces

리더십

물고기자리 주제에, 특유의 도피 성향을 극복하고,
무절제한 감수성도 가다듬어, 급기야 한 회사의 중간 간부 위치까지?

그는 예사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에게서 게으름과 방종이라는 독버섯을 뽑아내고 나면,
그 자리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과, 몸을 사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완벽주의와,
보이지 않는 기미까지 포착하는 초월적인 이해력만 남는다.

선배로서도 훌륭하고, 인간으로서도 존경할 만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만은 절대 안 된다.



Pisces

당신의 직원이라면

리더십

물고기자리 직원을 뽑다니 회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다.

물고기자리 주제에 직장에 기어들어 오다니, 자기 개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다.

덕분에 당신은 내내 머리가 아프다. 걸핏하면 늦게 나오고,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수시로 휴대폰 끄고 잠수를 탄다.

한소리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부답이다.
십중팔구 물고기자리는 직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튕겨져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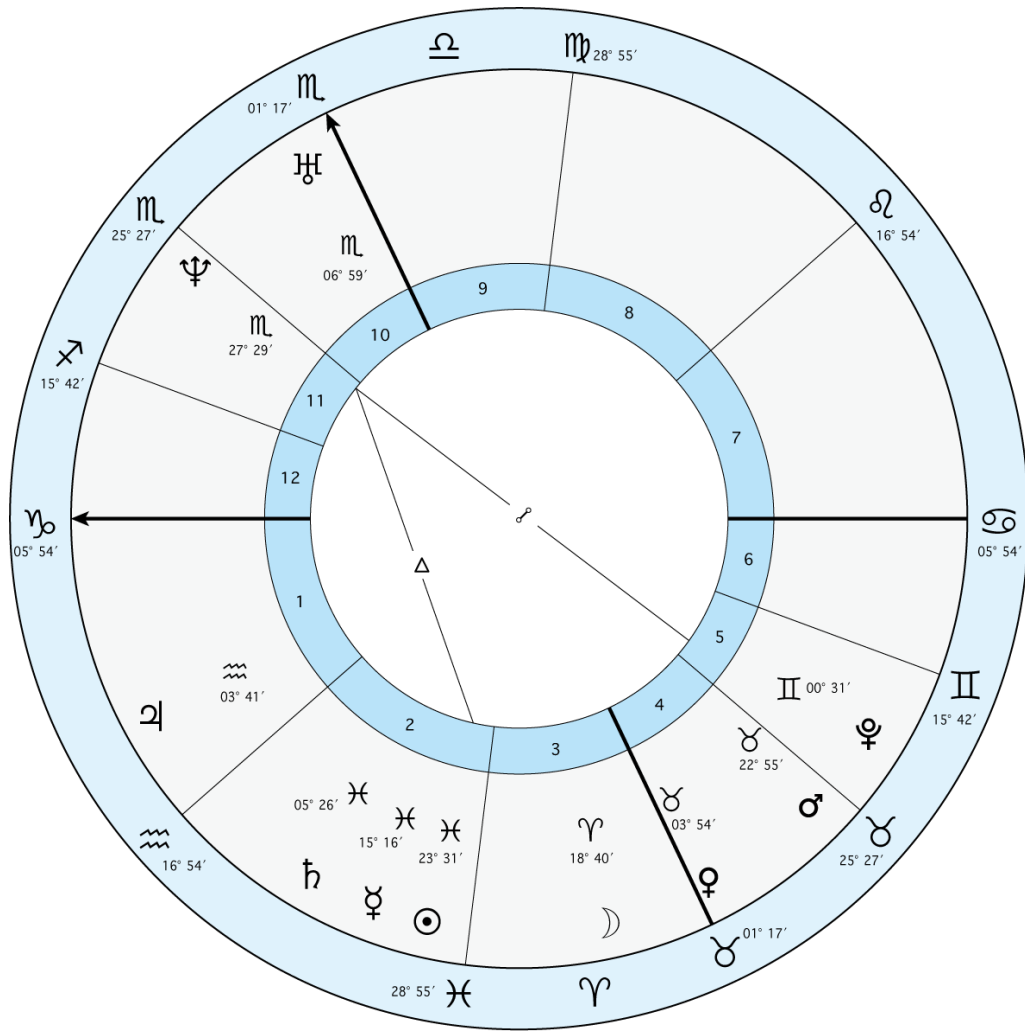
12. 물고기자리



Pisces

역사

1



조선 18대왕 **현종**

☉ 물고기자리 x ♃ 양자리

1641년 3월 14일

NATAL CHART

12. 물고기자리

♋

Pisces

조선 18대왕 **현종**
2 역사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든 송시열은 우리나라 학자 중에 유일하게 ‘자
子’ 자를 붙인 인물이다. 효종과 현종 두 임금의 스승으로 문하에 수많
은 인재를 배출했다.



송시열 초상화
국립중앙박물관

♋

Pisces

조선 18대왕 **현종**
3 역사

“예문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그의 복도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고서 그 아래에 또 4종의설이 있는데, 서자庶子가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3년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예문대로 말하자면 차장자 역시 서자인데, 위아래의 말이 이처럼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며 또 의거해 정정할 만한 선유先儒들의 정론定論도 없어서,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종실록》 1권, 즉위년(1659) 5월 5일(송시열의 주장)



송시열 초상화
국립중앙박물관



Pisces

조선 18대왕

현종

4

역사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이제 와서는 감히 정체가 아니다는 것으로써
오늘날 예법을 단정 지으려 한단 말인가.”

《현종실록》 22권, 15년(1674) 7월 15일

12. 물고기자리

♊

Pisces

조선 18대왕 **현종**
5 역사

진휼청은 전쟁과 흉년 때 임시로 설치된 빈민구제기구였는데, 현종은 이를 상설 복지기구로 만들었다. 진휼 후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 감찰하게 한 다음 승진시키거나 벌을 주었다.



♋

Pisces

조선 18대왕 **현종**
6 역사

창경궁 관천대觀天臺는 보물 제851호로, 숙종 때 창덕궁 금호문 밖에 설치했다가 창경궁으로 옮겼다.

화강암 석대 위에 돌난간을 두르고 한가운데에 천체 관측 기기인 간의 簡儀를 설치하고 천체를 관측했는데 현재 석대만 남아 있다. 경신대기 근에 이어 숙종 때는 을병대기근으로 천문 관측이 더 중요해졌다.



Q&A

THANK YOU